

국방일보 창간 40주년 축하 메시지

국방일보 창간 마흔 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방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64년 전우신문으로 태어난 국방일보의 발자취는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눈부신 발전사라고 하겠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또 해외 곳곳에서 조국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피땀 흘려 온 우리 용사들의 친근한 벗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방일보가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안보전문 일간지로 거듭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애정과 깊은 신뢰를 국방일보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군은 지금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하고 믿음직한 국민의 군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국방일보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국방개혁의 길잡이로서, 국민과 군을 이어 주는 가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방일보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